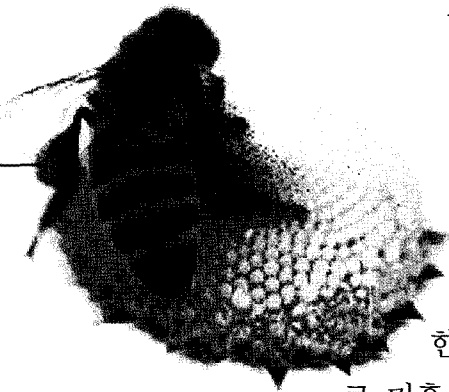


화분 · 로얄제리 건강식품으로 등재돼야

- 효능 연구로 과학적 자료 입증 필요

화분



내년부터 건강기능성 식품에서 제외되는 로얄제리와 화분이 다시 건강기능성 식품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효능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양봉산물 가운데 로얄제리, 화분, 프로폴리스는 건강기능성 식품으로 판매되었으나 2년 전 식약청에서 실시한 건강기능성 식품들의 재평가 작업에서 과학적 입증 자료 미흡으로 로얄제리와 화분은 건강기능성 식품에서 제외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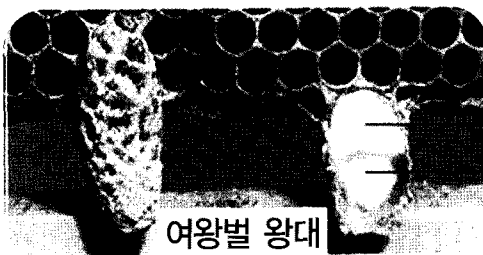
유예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이다.

로얄제리와 화분이 건강식품으로 제외된 것은 임상실험 등을 통한 인체에 미치는 효능과 과학적 입증자료(임상실험)들이 미흡한 상태에서 각종 효능 정보가 난무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로얄제리와 화분이 건강 식품에서 제외된 것을 환영하고 있는 분위기다. 건강식품으로 선정되면 판매자 허가와 교육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만 이들 제품을 판매할 수 있어 판매가 까다롭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양봉인들은 양봉업계의 미래를 위해서는 하루 빨리 건강식품으로 등재되어 판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봉협회에서도 “양봉농가 판매를 생각하면 건강식품이 아닌 상태가 손쉽게 판매할 수 있어 좋겠지만 양봉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건강기능성 식품으로 인정을 받아야 한다”며 “양봉산물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이들의 효능을 과학적으로 밝힐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봉**



여왕벌 왕대

생 로얄제리 유충